울산대학교 조형논총 제4권 1호 pp. 39~53, 2001
Journal of Design Vol. 4, No. 1, pp. 39~53, 2001
University of Ulsan.

시각예술에 있어서 폴라로이드 전사(轉寫) 사진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연구

박 성 완
디자인대학, 시각디자인전공

<요약>

오늘날 사진은 과학기술이나 정밀화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장비에 있어 양적, 질적으로 급진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사진자체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 인쇄매체, 영상매체 등 타 디자인 분야와의 협력과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여 사진 디자인은 보다 고급화와 다양화를 기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1C 디자인 방향으로 전통과 첨단 과학 기술의 조화를 강조하는 시점에서 현대 사진은 Digital Image의 급진적인 발전에 비해 전통적인 사진예술인 Analog적Image 제작기법이나 응용 그리고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활동은 오히려 미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각예술에 있어서 새로운 이미지 표현 방법으로 폴라로이드 전사 (轉寫-image transfers) 사진을 연구하였으며 소재 면으로는 전통을 중시하고 제작기법 면으로는 현대적으로 재조명하여 차별적이며 보다 독창적인 이미지 제작 방법을 모색하여 그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모든 이미지 제작 과정을 실험, 실습을 통해 연구하였다.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Polaroid Transferring Technique to Visual Art

Park Sung-wan
College of Desig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Abstract

Recently, photography has developed dramatically in the quality and quantity of its equipment and accessorie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precision chemical technology. This advancement has resulted in the outstanding quality and variety of design in photography due to the cooperation and compliment of other design areas, such as public arts, painting and visual media. More important, the application and efficiency of photography have remarkably ascended due to its value in the area of visual art. Also, the variety of materials and distinction of expressions applied in photography have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to all the designers. Within this context,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research is to present, "a new distinct expression visual art" and to apply "Polaroid Image Transferring" to the area of visual art by reinterpreting this technology through the modernization of the 20th century. Finally, we will increase the variety of options and methods available to archivist and designers. Also, it adds to the diversity and quality of work that can be created by designers.

1. 서론

사진은 오랫동안 소통과 표현의 원천적 수단이었으나 오늘날 사진은 시각정보의 바른 전달 뿐 만 아니라 상품의 가치 또는 시각적 특성을 창출하기 위해 다른 매체와 함께 활용도나 효율성은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진에 있어서 문제점은 재료에 대한 느낌이나 그 표현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노력 부족으로 획일화된 사진만 제작할분 다양한 재료의 아름다움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디자이너들은 단순한 사진자체 이외에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과제, 기술, 응용과 경험을 통하여 창조적인 판단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료, 기술, 형식 등을 다른 매체와 적극적으로 상호 관련시켜 조형적, 시각적 특성을 익힐 뿐만 아니라 시각적 느낌의 변형, 관찰, 실험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 표현 방법이나 기술, 재료에 대한 이해와 노력을 필요로 하고있다. 또한 사진예술이 최근에 들어 대중화, 보편화 되고있는 추세로 볼 때 시각적, 조형적 감각을 창조적으로 이용하여 개인의 자질에 따른 실험을 통해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재료의 다양성과 표현의 차별성은 모든 디자이너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폴라로이드 전사 (轉寫 -image transfers) 사진은 디자이너들에게 사진 적인 이미지에 그들 개인만의 스타일을 반영시켜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2. 폴라로이드 이미지 전사(轉寫)

1960년 중반 폴라로이드 연구 사진작가 중 한사람이 부주의로 폴라컬라 음화(音畵)를 계산대위에 놓고 잠시 후 음화를 집어들자 어떤 이미지가 카운터 위에 전사된 사실이 폴라

칼라 이미지 전사의 시초가 되었다. 폴라칼라 이미지 전사는 예술가에게 사진적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의 무한한 능력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고대 프레스코 화법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표현했을 뿐 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연조(軟調)로 표현된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림 1) 이것은 색조의 연조적 강조에서 사진과 회화의 대담한 조화와 다양한 소재들을 융합함으로써 이미지 전사는 창작범위에 있어 많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많은 디자이너들은 이미지 전사를 수 작업에 의해 창조된 이미지와 사진을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 사이에서 섬세한 예술적 기교와 기법이 어우러진 예술형태인 교차예술로 언급하고 있다.

(그림 1)

2.1 이미지 전사 제작법

이미지 전사란 수용체 표면(receptor sheet)이라는 비 사진용 표면 위에 양화를 전사하고 폴라칼라 음화 일부를 벗겨내는 과정을 말한다. 이미지를 창출해내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계속 새로운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는 슬라이더 인화 기법, 투영 인화 기법 이외에도 선명한 조명에서도 폴라로이드 필름 위에 직접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범위까지 근접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장, 단점을 가지고 있다.

(1) 슬라이드 인화 기법 (Printing from slides): 전사하기 위한 이미지를 만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폴라로이드 필름 위에 일반 35mm 슬라이드를 복사하는 것이다 3 1/4 × 41/4 인치 전사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vivital 즉석 슬라이드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고, 4×5 인치 전사 이미지는 O+ER proprinter를, 8×10인치 전사 이미지는 8×10 인치 필름 위에 투형 인화나 폴라프린트를 이용 할 수 있다. 또한 슬라이드 인화 기법은 다양한 크기의 전사 이미지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전사 기법, 재료, 컨셉을 가지고 다양하게 실험하면서 여러번 같은 이미지를 전사할 수 있으며 고 화질의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그림 2)

(그림 2)

(2) 투영인화 기법 (Projection printing):일반적인 확대기를 사용하여 폴라로이드 필름 위에 이미지를 직접 전사하는 방법으로 생동감 있고 기교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 장의 폴라로이드 필름 위에 이미지 직접 배치하므로 자르기, 부도, 배치 등에서 훨씬 자유로우며 어느 한 일부분을 선택해 이미지를 구성 할 수 있고, 이미지의 각 부분 부분의 색 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특별한 부분을 뺄 수도 있다. 또한 폭 넓은 색조 범위를 얻기 위해서 서로 다른 유형의 필터를 사용하여 독창적이며, 변형적인 양질의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다.(그림 3)

(그림 3)

(3) 카메라 직접 제작 기법(Camera working live): 카메라 직접 제작 기법은 피사체에 대해 초점조절, 노출, 빛, 구성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으며 생동감 있고 신선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 카메라의 위치를 다양한 각도에서 독창적으로 피사체를 구성하여 감각적인 전사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며,4×5, 8×10 인치 필름 홀더를 가진 카메라를 이용하여 어떠한 조명 아래에서도 독창적인 폴라칼라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결점은 각각의 shot에서 전사 할 수 있는 기회는 한번뿐이므로 적지 않은 실패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그림 4)

(그림 4)

2.2 이미지 전사방법

폴라칼라 전사는 특별한 약품이나 도구, 장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폴라로이드 폴라칼라 필름 중 668, 669, 59, 559 또는 809 타입들이 전사 과정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9" 시리즈가 가장 일관된 전사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필름의 종류를 선정한 후 에는 마른 수용체 표면에 이미지를 전사할 것인지 젖은 수용체 표면에 이미지를 전사할 것인지를 이미지의 성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건식 전사는 더 선명한 해상도를 가지는 반면 습식 전사는 수채화 효과를 나타낸다.(그림 5)

(그림 5)

(1) 수용체 표면 준비(Preparing the receptor surface): 이미지 전사과정의 최초 단계로 종이를 물에 담그 약 30초 후 종이가 완전히 젖었을 때 마른 평판 위에 놓고 스퀴지, 와이퍼, 또는 종이 타월을 사용하여 초과분의 수분을 가능한 많이 제거한다.(그림 6)

(그림 6)

(2) 필름 처리 과정(Processing the film): 전사를 위한 이미지 처리는 보통의 폴라칼라 프린트 처리와 같다. 필름을 필름 홀더를 통해 당기면 통과하는 동안 현상액이 필름 위에 뿌려지고 이미지 색조는 네가티브(negative)에서 포지티브(positive)로 변해간다. 상 노출 이후 약 10초에서 30초 범위 안에서 필름을 분리하면 필름을 분리하는 시간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 효과가 나타난다. 이른 분리는 색조의 이동을 막으며 네가티브에 염록색 색조와 약간의 붉은색 색조 그리고 노란색 색조를 남긴다. 이것이 대부분의 전사된 이미지가 염록색 사선을 가지는 이유이며 만약 10초 이전에 필름을 분리하면 색조가 충분히 이동할 시간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각각의 필름 형태와 종류에 따라 분리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4x5인치 필름은 네가티브에 뿌려진 초과된 현상액을 모으는 금속 클립인 트립 엔드(trap end)를 잘라낸 뒤 분리하여 필름을 처리한다.(그림 7)

(그림 7)

(3) 이미지 전사(Transferring an image): 어떤 필름 종류를 사용하든지 필름을 따로 떼어낸 후 포지티브는 남겨 놓고 색조가 함유된 네가티브를 수용체 표면 종이 위에 신속하게 놓아야 하며 네가티브를 놓을 때 너무 오래 시간을 지체하면 색조가 말라버려 이미지 전사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난 후 손 이나 롤러를 사용하여 고른 압력으로 전체 네가티브를 문질러준다. 필름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약 60초에서 120초 정도를 기다린 후 한쪽 끝에서부터 한번에 천천히 잡아 당겨 네가티브를 벗겨내면 전사된 이미지가 나타나며 젖어있을 때나 마를 동안에 전사는 계속해서 행해질 수 있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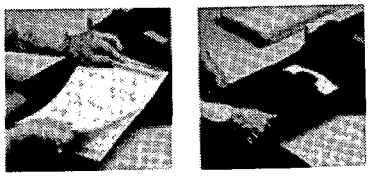
(그림 8)

2.3 이미지 전사기술

이미지 전사 과정의 흥미로운 부분은 단 한가지의 정확한 기술이 없는 점이다. 모든 단계는 이미지 전사에 영향을 미쳐 수용체 표면 종류에서부터 롤링(rolling)과 필링(peeling)의 다양한 방법에 이르기까지 예상할 수 없는 흥미로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처리 과정으로 이미지 전사 기술은 쉽게 익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지 전사가 좀더 익숙해지면 디자이너 각자의 기교를 가지게되고 나아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기술을 미세하게 세분하여 조절해 완벽한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다. 이미지 전사 기술은 끊임없는 경험

이 유일한 공통적인 법칙이며 무엇보다 여러 각도로의 접근과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기술을 습득하여야한다.

(1) 수용종이: 성공적인 전사를 위해서는 상(象)의 전달과정동안 수용종이를 움직이지 않고 완벽하게 놓아야한다. 어떤 디자이너들은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선호하여 적은 양의 현상용액을 선호하여 상의 전달 과정에서 수용종이를 움직이지만 가장 윤곽이 뚜렷하고 선명하며, 현상용액이 잘 스며들어 절정의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전사 시작 전에 수용체 종이를 테이프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한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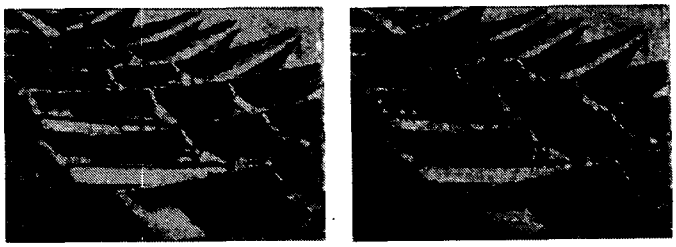
(그림 9)

(2) 상(象)의 전달: 이미지 전사 과정에서 네가티브 필름의 뒷면에 직접 압력을 가하는 것은 상이 고르지 못하거나 불 완전한 전사를 유발케 한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네가티브 필름을 수용종이 위에 놓은 후 완충기 역할을 할 종이를 덮어 상을 전달하는 동안 필름 자체보다 보호용 종이를 문지른다. 브레이어 롤러(brayer rollers)와 스퀴즈(squeegees)는 상을 전달하는 동안 고른 압력을 가하는데 이상적이며 특히 그늘이 많고 전체적으로 어두운 상은 많은 영역에 다양한 각도와 크기의 압력을 가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어두운 부분은 밝은 부분에 비해 더 큰 압력을 필요로 하며 좁은 부분과 제한적, 차별적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스푼, 동전, 입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기본적인 롤링 과정을 마쳤을 때 벽돌 같이 무거운 물체를 전사지 위해 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상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은 상을 평평하게 하고 모든 감광유제를 수용체 표면과 일정하게 접하도록 한다. 그러나 무거운 물건을 오랫동안 놓아두면 필름이 수용체 표면에 부착될 수 도 있어 약 1분에서 2분 이내가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 필름 벗기기: 네가티브를 벗겨내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단계며 많은 주의를 요한다. 너무 빠르게 당기면 감광유제가 필름과 함께 부착되어 전사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의 밝은 부분은 쉽게 전사되는 특성이 있으나 어두운 부분은 때때로 상이 부풀고 들뜨는 경향이 있다. 상의 첫 번째 구석을 들어올리기 위해 칼 등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현상용액의 과도한 얼룩을 방지하고 상의 가장자리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칼날을 네가티브 아래에 넣을 때 상이 파손되지 않게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넣어 들어 올려야 한다.

(4) 흑백 이미지 전사와 여과: 부드럽고 고풍스런 흑백 전사 이미지는 일부 광고에 사용되고 있다. 이 전사 과정은 즉석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도 폴라 펜(PolaPan) 35mm 즉석 슬라이드 필름과 같은 흑백 폴라칼라 필름에 프린트하여 전사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다. 흑백 이미지 전사는 특히 색 적응 관점에서 다양한 기술이 요구된다. 흑백 이미지 전사는 청록끼를 가지는 경향이 있으며 회색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여과에 의한 색 조절을 해야

한다. 폴라칼라 필름에 밝은 파란색 필터는 차갑고 단색적인 색감을 주는 반면 옅은 노란색 필터는 따뜻하고 고풍스런 색감을 준다.(그림10) 또한 프린터나 확대기에 필터를 추가함으로써 폴라칼라 필름에 칼라 균형을 정확히 수정할 수 있으며, 칼라 필터의 미세 조정을 통해 흑백상의 탁월한 효과와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두드러지게 한다. 흑백 원본에서 이미지를 전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다양하다. 폴라칼라 네가티브를 3분에서 90분까지 수용체 표면 위에 놔두며 이때 수용체 표면의 재질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림 10)

(5) 물의 산성도(PH) 조절: 물의 산성도는 이미지 전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나 PH 농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확정적이지 않다. 습식 전사시 물에 중화제나 식초를 첨가하기도 하며 5:1 비율의 소독용 알코올 또는 보드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물의 온도는 75 F 나 그 이상을 유지하면 감광유제가 떨어져나감을 방지할 수 있다.

(6) 8×10 인치 이미지 전사: 8×10 인치 이미지 전사 과정은 작은 필름의 전사 과정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큰 형태의 경우 쉽게 감광유제가 들뜨거나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습식 전사 법을 사용할 때 수용체 종이를 몇 분 더 물에 오래 담가 놓으며, 전사하는 동안 수용체 종이를 평평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용체 종이의 옆을 테이프로 고정시키지 않으면 끝이 말려 올라갈 수 있다. 또한 대리석이나 유리판과 같은 딱딱하고 평평한 표면 위에서 전사를 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8×10 인치 이미지는 보다 넓은 영역에 더 큰 압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넓은 브레이어 롤러나 대리석 롤링 핀을 주로 사용하며 대리석 롤링 핀은 좀더 부드럽고 넓으며 무거워 더욱 선호한다. 또한 전사 필름을 벗길 때는 한쪽 모서리에서부터 아주 천천히 반대쪽 구석을 향해 당기며, 이때 한 손으로 수용체 종이를 잡고 필름은 당기는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수용체 표면과 표현 방법

이미지 전사화(轉寫畵)가 점점 대중화됨에 따라 디자이너들은 그들 개인만의 스타일과 독특한 효과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방법들을 다양하게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를 창출하려면, 다양한 종류의 수용체 표면에 상을 전사하거나 전사하기 전, 전사하는 동안, 또는 전사 후 에도 이미지를 변형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한다.

(1) 수용체 표면별 본 이미지 전사

가. 피지(皮紙): 피지는 표면이 미끄러워 상의 흥미로운 뒤 틀림을 강조할 수 있으며 염

료가 더 잘 부착될 수 있도록 알코올로 표면을 닦아낸다. 피지에는 명암과 색상이 떠올라 깨어진 것 같은 시각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미지의 결은 매우 거칠고 얼룩져 보이지만 피지 표면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그림 11)

(그림 11)

나. 비단: 100% 자연산 섬유는 감광유제를 잘 흡수하는 반면 폴리에스테르(polyester)나 아크릴(acrylic)을 함유한 섬유는 감광유제를 흡수하지 못한다. 비단을 물에다 충분히 적신 후 감광유제가 균일하게 퍼질 수 있도록 딱딱하고 평평하며 부드러운 표면 위에다 일그러지지 않게 편다. 어두운 색상의 비단은 세부 묘사가 전산화에 부족하며 흰색이나 크림색 같은 밝은 색의 비단은 세부 묘사를 매우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비단은 최고의 투명성 효과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그림 12)

(그림 12)

다. 쌀 종이: 쌀 종이는 너무 섬세해서 다소 오랫동안 물에 적여 두면 용해시키는 성질이 있으며 전산화 과정에서도 섬유가 필름에 붙지 않게 매우 조심하여 필름을 벗겨야 한다. 쌀 종이는 이미지를 극적으로 부드럽게 하고 흐리게 하며, 또한 전사 후 에도 쌀 종이를 주름잡아 훨씬 흥미롭고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연출한다.(그림 13)

(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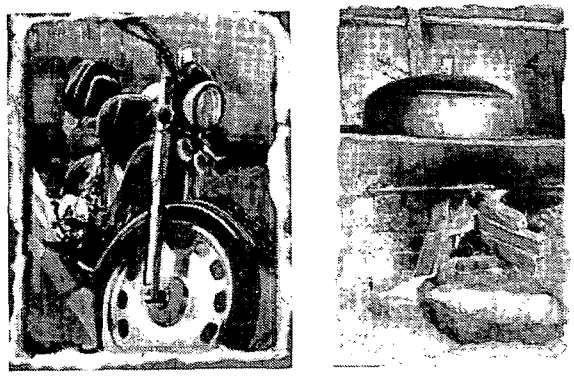
라. 합판: 일반적으로 나무의 재질은 짧은 시간 물에 적시며 조심스럽게 필요없는 여분의 수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적당한 습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합판 같은 섬세한 표면에 상을 전사할 때면 언제든지 감광유제의 흡수도를 먼저 측정하여야 한다. 합판은 이미지에 강한 색채감을 주고, 표면 결이 드러나게 하는 특수성이 있으며, 표면이 매끈하여 상이 마치 판 표면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각적 효과가 있다.(그림 14)

(그림 14)

4. 이미지의 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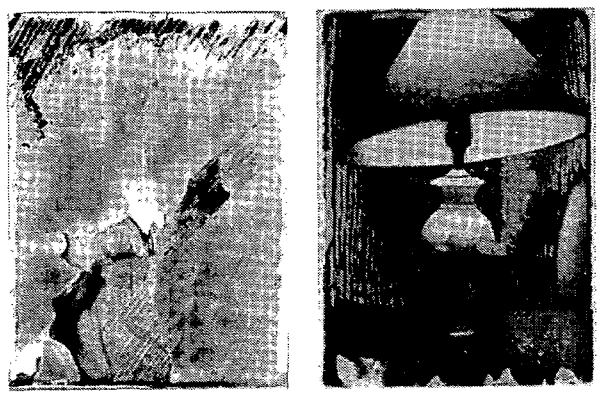
전산화 이미지가 보다 짜임새 있고 디자이너가 원하는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변형은 무엇보다 중요한 기술적 문제이다. 주로 파스텔, 칼라연필, 수채화 물감 등 회화적 요소를 이용하기도 하고, 강철 솜, 사포, 애칭바늘 등 기계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더욱 세밀하고 정교하게 제작할 수 있으며,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색조를 변형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이미지 변형 작업은 디자인 개인의 창의성과 표현력을 수용하여 독특하고 새로운 분위기의 이미지를 창조하며 이미지의 예술적, 상품적 가치를 높여 준다.

(1) 회화적 요소의 이미지 변형: 파렛트(palette)를 조절하여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전산화 이미지에 파스텔이나 수채화 물감을 사용하여 예술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 파스텔이나 수채화 물감은 전체 이미지를 덮지 않고 이미지를 완전한 모습으로 보존하면서 색의 층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색의 깊이를 더해 일러스트와 사진의 복합적인 이미지를 창출한다.(그림 15) 그리고 색연필은 이미지의 정교함을 향상시키고 특별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하며 어떤 특정 부분에 색을 입인 후 전체적으로 색 조절이 용이하여 선명하고 자연스런 효과를 주어 특히 풍경 이미지 전사에 적절하다.(그림 16)



(그림 15, 16)

(2) 기계적 요소의 이미지 변형: 더욱 흥미로운 색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필름을 노출하기 전 필름 표면에 긁은 도구로 거친 강철 솜, 사포 애칭바늘 등 기계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색의 민감한 에멀젼(emulsion)층을 벗겨내어 필름이 어떤 색의 특정 범위만을 재생하게 한다. 노출 전에 표면을 긁어내는 것은 노란색 감광층을 파괴하여 청남색 범위의 전체 색채에 변화를 주어 이미지는 네온 블루의 색조를 띠고 그 색깔은 급진적으로 무거운 질감의 모습으로 변화한다. 노출 후에 표면을 긁어내는 것은 또 다른 효과를 만들어 낸다. 그것은 마치 이미지에 하얀 줄을 상위에 칠해 놓은 것처럼 보인다. 두 가지 기술 모두 폴라로이드 현상 속도를 응용한 것으로 효과는 매우 독특하지만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그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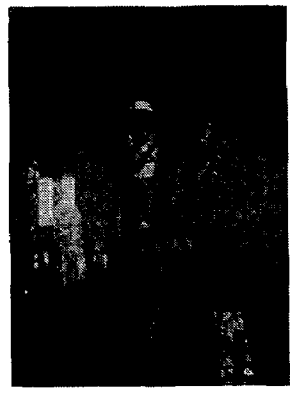
(그림 17)

5. 재창출에 의한 이미지 전사화

세심한 인화와 좋은 질의 색상 분리는 전사과정의 어떤 작업도 이미지의 재창출에 많은 차이점을 발생시킨다. 가장 정확한 색상과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최고의 선택은 원본의 이미지에 직접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디자이너 개인의 취향에 따라 씨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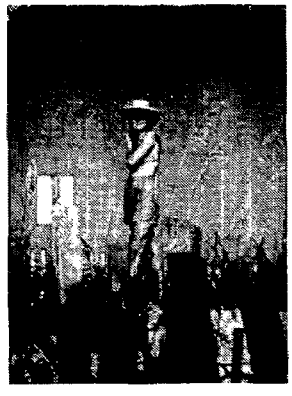
(C-print)나 투명도 작업 또한 특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1) 원본에 직접 주사(走査) 방법: 인화기는 다른 분야의 예술과 같이 원본 전사화를 직접 주사할 수 있다. 가장 정확한 이미지 제작은 원본 이미지에 직접 작업을 하는 것이지만 원본 자체가 두꺼운 종이는 종종 스캔닝 드럼(scanning drum)에 감싸는 것이 문제가 되어 종이가 파손될 수도 있다. 그러나 스캔너 조정이 용이하여 원본 직접 주사 방법은 각각의 이미지에 독특한 질과 원본의 분리, 색의 분리, 색상 조정이 다른 제작 방법에 비해 탁월한 장점이 있다.(그림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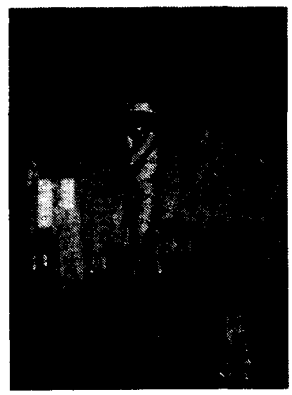
(그림 18)

(2) C-Print 주사 방법: C-Print는 인화기에 원본을 칼라 필름으로 촬영하여 그것을 스캔너 드럼위에 올려놓고 반사 이미지로 주사하는 방법이다. 스캔너가 C-Print로부터 색의 분리를 하기 위해 표준 색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프린트는 매우 정확한 재생산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C-Print의 이점은 원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재 촬영을 통해 노출 요소를 제어하여 전체적인 이미지 수정을 한 후 재생산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점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확한 프린트라 할지라도 원래의 이미지 전산화가 아닌 복사품 이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다.(그림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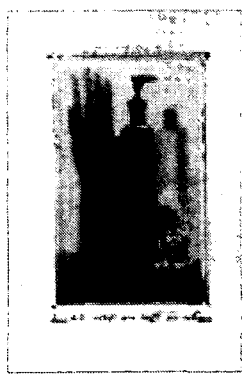
(그림 19)

(3) 투명도 주사 방법: 최근의 레이저 스캔너는 C-Print보다 투명도의 색상 분리를 더 정교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사실상 완벽한 재생산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C-Print와 같이 투명도는 노출 요소를 제어하며, C-Print보다 더 많은 양의 염료를 포함하여 훨씬 더 정확한 색상의 농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전산화 과정에서 적절한 색상 여과 법을 사용하여 원본의 원래 색상을 만들기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색상의 농도를 조절하여 시각적 효과를 볼 수 있다.(그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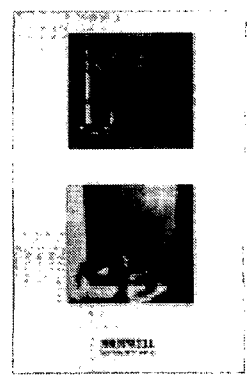


(그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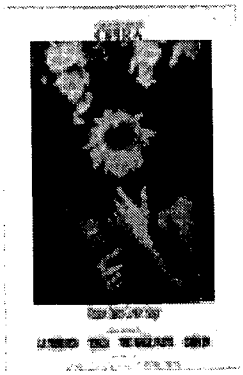
6. 폴라로이드 전사 사진을 응용한 시각디자인



잡지 광고 디자인
(그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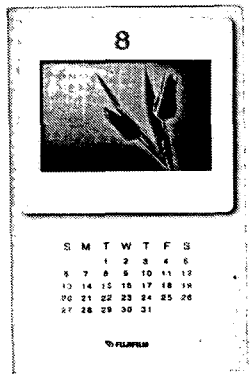
포스트 디자인
(그림 22)



포스트 디자인
(그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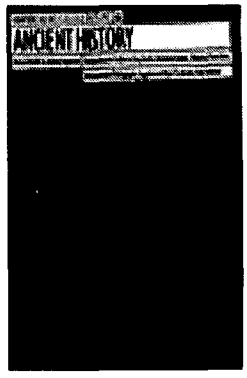
엽서 디자인
(그림 24)

달력 디자인
(그림 25)



달력 디자인
(그림 26)

전화카드 디자인
(그림 27)



잡지 표지 디자인
(그림 28)

7. 결론

오늘날 사진은 시각 정보의 바른 전달과 상품의 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사진의 활용도나 효율성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조형적, 시각적 이미지의 특성을 창조하기 위해 사진의 기술, 형식, 재료의 차별적 표현성은 디자이너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현대 사진의 대부분은 공장에서 생산된 획일적인 인화지에 제작되어 색상의 변형, 질감의 다양성, 표현의 차별성은 한계에 있으며 특히 창의적 이미지 제작을 요구하는 디자이너에게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디자이너들은 주로 컴퓨터를 이용한 사진제작으로 조형적, 시각적 특성의 사진을 제작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한 사진의 변형 작업은 모니터상의 이미지와 출력물의 이미지가 일치하지 못하며 제품마다 현저한 색상의 차이와 출력용지의 제한으로 일반 사진과의 뚜렷한 차별성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폴라로이드 전사 사진은 새로운 이미지 표현 방법으로 기술, 재료, 경험을 토대로 디자이너 개인의 개성과 관찰, 변형으로 새로운 시각적 느낌의 사진으로 제작되어지길 기대하며 나아가 디자인 교육 분야나 상업적 디자인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폴라로이드 전사 사진이 보다 고급화, 다양화, 대중화를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참고 문헌

1. A Guide to Polaroid Professional Film. Polaroid Corporation. 1989.
2. Adam, Rober. Beauty in Photography Essay in Defense of Traditional Values. 1985.
3. Aperture Inc. New York. 1989.
4. Business and Professional .Polaroid Corporation. 1980.
5. Image Transferring. Polaroid Corporation. 1992.
6. In Focus. Polaroid. Polaroid Corporation. 1995
7. Palette Computer Image Rocorder. Polaroid Corporation. 1995.
8. Polaroid. Polaroid Corporation. 1992
9. Polaroid Guide to Instant Imaging. Polaroid Corporation. 1991.
10. Polaroid Guide. Polaroid. Polaroid Corporation. 1995
11. Polaroid Professional Film. Polaroid Corporation. 1994.
12. Polaroid Business Systems. Polaroid Corporation. 1995.
13. Vivtar Instant Slide Printer. Vivtar Corporation.1990.